

안방에서 떠나는 랜선 음악 여행 '트립 투 케이팝'

초록이 무성한 5월, 날은 따뜻해졌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공연계는 때 아닌 한파를 앓고 있다. 집단 감염의 우려로 예정된 공연들이 잇달아 취소되면서 팬들의 실망도 이만저만 이 아니다. 집에서 '최애'의 영상을 복습해보지만 아쉬운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이러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한 랜선 음악 여행, 트립 투 케이팝(Trip to K-POP) 공연 현장을 찾아가봤다.

11+11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주관으로 진행된 언택트(비대면) 공연 '트립 투 케이팝'은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뮤지션들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전 세계 케이팝 팬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케이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We shall overcome(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슬로건으로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CKL스테이지에서 사흘간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어느 공연 못지않은 현장감을 자랑했다. U+아이돌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생중계 덕분이다.

일반적으로 음악방송을 촬영 할 때 7~11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트립 투 케이팝'은 11대의 카메라를 새로 추가하여 멤버별 직캠은 물론 무대도 어느 방향에서나 골라볼 수 있게 했다. 거기에 더해 직캠 화면과 무대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옴니뷰 서비스를 제공하며 '트립 투 케이팝'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누워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특수 제작해 16:9 비율의 화면을 모바일에서도 고화질 감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시간 소통 역시 U+ 아이돌라이브를 통해서만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다. '트립 투 케이팝'의 이러한 노력은 언택트 공연은 현장감이 떨어져 재미가 덜할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공연의 프로듀서를 맡은 이성영 SBS 미디어넷 차장은 "추후에는 4K화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TRIP TO K POP





모바일 우선주의

B1A4의 산들이 진행을 맡은 이번 공연은 아이콘, 오마이걸, 카드, 에이프릴 등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케이팝 가수가 다수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자랑했다. 또한 시청자들과 출연진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토크 코너’를 개설해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트립 투 케이팝’이 다른 음악 방송과 차별화를 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스트리밍 환경에 초점을 뒀다는 점이다. U+아이돌라이브가 이번 공연에 참여한 것도 모바일에서 공연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토크 코너’ 역시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를 보는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 수 있게 만들어 가수와 팬이 직접적으로 소

통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실제로 가수 산들은 토크쇼를 진행하며 즉석에서 팬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했다. 또한 가수 소란이 공연 중 “모두 박수를 치자”고 얘기하자 공연을 시청하던 팬들이 일제히 박수 모양의 이모티콘을 올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댓글로 달며 응원 열기를 더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끊김 없이 전 세계 16개국으로

언택트 공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역시 원활한 스트리밍일 것이다. 제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스트리밍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청자들에게 현장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트립 투 케이팝’ 또한 SBS MTV와 U+아이돌라이브는 물



론이고 유튜브, 브이앱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동시 송출되는 만큼 스트리밍 과정에서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했다.

이를 위해 제작진은 먼저 텔레비전 중계와 인터넷 스트리밍을 구분해 '중계존'과 '스트리밍존'으로 분리했다. 하나의 송출기기에서 모든 스트리밍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널로 나누어 중계하며 돌발 상황에도 손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관객이 없는 언택트 공연의 특성을 활용해 빈 객석만큼 백스테이지를 넓혀 그 자리를 중계존으로 활용한 덕분에 가능했다.

관객이 없어서 늘어난 공간은 백스테이지뿐만이 아니었다. 관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와 대기 공간, 티켓박스도 자연스럽게 빈공간이 됐다. 제작진은 이 공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스트리밍존과 토크 코너 세트를 만들어 활용했다. 관객이 없는 언택트 공연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공간 활용이었다.

'트립 투 케이팝'은 특수제작 카메라와 시청자들과의 실시간 소통 그리고 원활한 스트리밍을 위한 스트리밍존 개별 설치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덕에 공연 3일 간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접속하고 69만뷰 이상의 재생 횟수를 기록했다.

이혜은 콘진원 대중문화본부 음악패션산업팀장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트립 투 케이팝'이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해진 마음을 잠재우며 해소시켜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트립 투 케이팝' 이후로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온택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N**